

북스

어린이 책꽂이

**▲니 꿈은 뭐인가?-비행사 권기옥 이야기=**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 권기옥에 대한 이야기다. 일제 강점기, 가난과 여성이라는 장벽을 넘어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간 그는 결국 비행사의 꿈을 실현했다. 그의 삶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가 지나온 아픔과 기쁨의 순간도 함께 느껴볼 수 있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단추들의 수다 파티=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 소가칸 아동출판문화상 등을 수상한 일본 동화작가 다카노 호오코의 작품. 다카하시 씨네 집 위에 모인 단추들이 들려주는 아홉 편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들이 들려주는 한 편의 인생 이야기에는 재미뿐 아니라 만남과 이별 등 모든 면면이 다 들어 있다. (시공주니어·7천원)**

**▲로봇의 별 1~3=전대일문화상과 참비 좋은 어린이책 대상을 받았던 작가 이현 씨가 쓴 SF 장편동화. 지능과 감정까지 가졌지만, 인간과 동종으로 취급되지 못하는 로봇들은 다른 땅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다. 한편, 인간 세계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싸움을 나선다. (푸른숲주니어·각권 8천800원)**

**▲시간의 네 방향-커다란 금빛 시계를 따라 떠나는 시간 여행=우리나라에서 만든 플란트 최고의 그래픽 작가 이보나 히멜레르스카의 책이다. 작품의 무대는 유럽의 동쪽 어느 강가에 세워진 중세 도시를 배경으로 1500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까지 백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을 그렸다. (살림어린이·1만9천원)**

**▲지구환경 피수꾼 요리왕 콩쥐=지구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춘향전·별주부전·홍길동전·임꺽정전 등 우리 고전 작품을 빌려 들려주는 '뽕! To The Classic 시리즈' 일곱 번째 권. 이번에는 콩쥐가 친환경 요리 실력을 자랑하는 인물로 나와 환경 호르몬,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문제점을 재미있게 알려준다. (함께읽는책·9천700원)**

**▲페르디의 봄동산=호기심 많은 꼬마 여우 페르디가 느끼는 계절의 변화를 아름답게 담았다. 봄을 맞아 페르디는 꽃향기도 맡고 나비들과 숲바꼭질도 하며 봄을 즐긴다. 하지만 과수원에서 눈을 발견한 페르디는 친구들을 걱정한다. 친구를 걱정하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다. (느림보·1만원)**

**▲빨간 오토바이 사 쥐! =철학하는 피콜로 시리즈. 장난감을 사 달라고 떼쓰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철학 그림책이다.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아이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깨닫게 하고 물건을 갖고 소비하는 게 삶의 전부라 아니며 부모님의 사랑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해준다. (국민서관·1만원)**

**▲3학년은 사건이 많아=대만 어린이 준웨이 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다. 학년마다 친구, 교사, 부모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일들을 어린이의 시각으로 재미있게 풀었다. 아이에게 학교생활이 무조건 재미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힘든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들려준다. (예림당·8천500원)**

**광주, 전남 최고! 전통성인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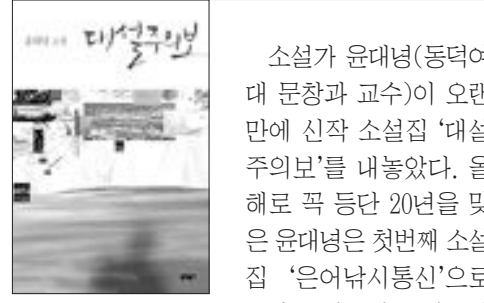
13년 전통의 최고의 서비스  
국내는 물론 해외 교포들도 직접 연결시켜 드립니다.

100% 상담비 무료  
1588-3533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하트론

# 12년 엇갈린 사랑 끝 그 사람이 찾아온다

대설주의보  
윤대녕 지음



소설가 윤대녕(동덕여대 문창과 교수)이 오랜만에 신작 소설집 '대설주의보'를 내놓았다. 올해로 꼭 등단 20년을 맞은 윤대녕은 첫번째 소설집 '어여부시통신'으로 등장 초반부터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작가다.

이번 작품에 실린 7편의 단편은 소설집의 비평을 쓴 신형철의 '과감하게 말하면 전체가 한편의 소설'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라는 표현처럼 얼핏 비슷하진 않지만 묘여 있다. 세상에 내 던져진 이들의 불안한 사랑, 힘겨운 사랑, 인연의 끈으로 묶인 관계 등.

단편집의 재미 중 하나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오히려 비슷한 듯하지만 또

'미묘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등장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따라가는 게 흥미롭기도 하다.

시인 최승호의 시집에서 제목을 따온 표제작 '대설주의보'는 저자가 2008년 겨울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쓴 글이다. '내 생애에서 모종의 변화가 진행되던 시기였고, 그 심정을 담은 글'이라는 설명이 붙은 작품이다.

책 속 주인공은 사소한 오해로 헤어진 뒤 세월 엇갈리지만 하던 두 남녀가 결국 사랑을 이루려는 것을 암시하는 결말로 끝난다. 수록작품 중에서 드문 해피엔딩이다.

'대설주의보'의 주인공들은 서로 사랑하지만 오해와 상황 탓에 헤어지고 만다. 남자와 운수와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드문 드문 만남을 이어간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여자는 자살을 결심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눈 오는 백담사로 향한다. 12년 동안의 방황은 폭설을 뚫고 결국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끝을 맞는다.

첫번째 수록작 '보리'는 청명이 되면 지방의 온천에서 만나는 쓸쓸한 연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폴백 위의 점성'과 '꿈은 사라지고'에서는 운명의 고리로 얽힌 친구 관계인 두 남자와 한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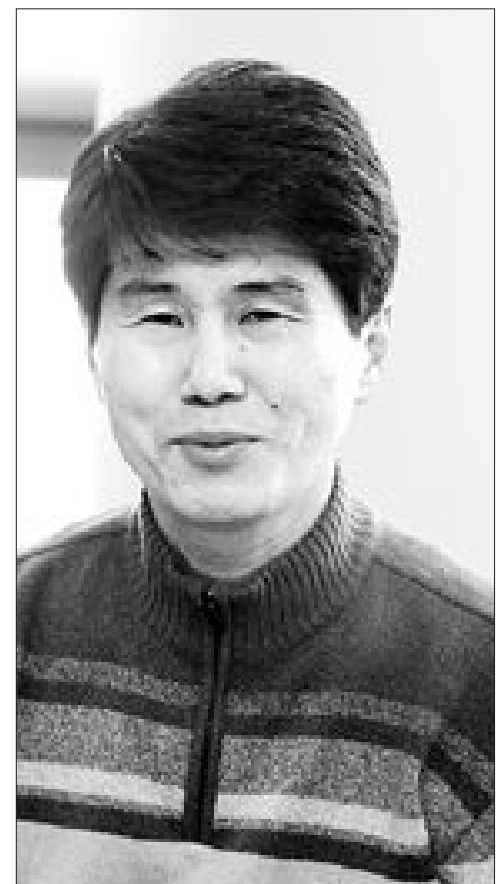
자, 삼촌·조카와 한 여자가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도비도에서 생긴 일'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냉정하고 아픈 기록이다. 카피라이터가 된 전직 시인, 편집자가 된 전직 시인, 그리고 시나리오라는 걸 쓰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인물들의 직업에서 엿볼 수 있듯 '글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쏟아진다.

'여행'이라는 단어와 가장 밀접한 작품을 써온 작가의 이력처럼 이번 작품에도 원주와 속초와 울산 반구대 암각화 등 주인공의 여정을 나타내는 지역이 자주 등장한다. '오대산 하늘 구경'과 '꿈은 사라지고 역사'는 월정사에서 '도비도에서 생긴 일'은 속초 '최산은천'에서 쓰는 등 작가는 긴 여정 속에서 글을 써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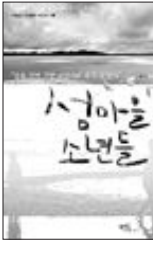
마지막에 실린 '여행, 여름'은 앞의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는 단편이다. 원주토지문학관에서 만난 글 쓰는 '두 사내'의 여정을 그린 이 작품에는 역시 다른 단편들처럼 '사람'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저자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던 극작가 고(故) 윤영선과의 인연을 담고 있다. '여행'은 윤영선이 쓰고 연출한 작품이다.

(문학동네·1만2천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흑산도 아이들의 풋풋한 이야기

섬마을 소년들  
황용희 지음



서울에 살며 영등포교도소 교도관으로 재직중인 황용희(56)씨가 자신이 나고 자란 섬마을 이야기를 엮은 에세이집 '섬마을 소년들'을 출간했다.

저자는 흑산도에서 동지나해 쪽으로 30km 내려간, 돌길이 많고 이 나를 붙은 태도(苔島)가 고향이다.

책은 섬마을 '흑산도'에서 나고 성장한 18년 동안의 아름답고 치열했던 유년의 기록을 정감 있는 문체로 되살렸다.

섬소년들이 육지에서 전학온 소녀를 위해 잡은 물고기로 '해변 식당'을 차린 이야기, 우럭을 팔아 마련한 축구공으로 산꼭대기에서 축구를 했던 이야기들이 애뜻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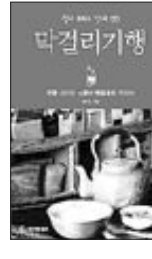
1960년대 초 초근교의 시절, 정부에서 낙도지방으로 배급되는 가루우유를 먹고 배탈이 나는 소녀의 모습은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 정경이 그치지 않는 옛 이야기다.

또 책 곳곳에 등장하는 형이리(뒤오박에 달려 있는 해초 보관 그물망), 뒷마(작은 배라는 뜻의 순우리말), 해침골(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골짜기), 고살(촌락의 좁은 골짜기), 정지간(부엌), 짝지(해변), 꽃가(화단) 등 순우리말과 전라도 사투리는 다소 생소하지만 정경이 읽힌다.

(문토프레스·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전국 유명 막걸리 대포집 소개

막걸리 기행  
정은숙 지음



한 때 대접받지 못했던 막걸리가 요즘 그야말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최근 막걸리 수출은 맥주수출액의 50%를 점하고 있고 그동안 막걸리를 팔지 않던 음식점들도 다수 막걸리를 들여놓고 있다.

지난 2007년 일본 현지에서 한국의 막걸리를 소개한 '막걸리 기행'을 출간하며 막걸리 한류 붐을 일으켰던 정은숙(48)씨가 책 발간 이후 번뜩임 상황을 반영하고, 새로운 자료를 추가해 한국판 막걸리 기행서 '정에 취하고 맛에 반한 막걸리 기행'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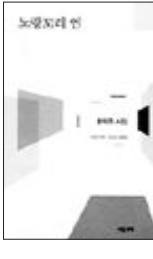
저자는 전국의 유명 막걸리를 찾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등 전국의 막걸리 양조장과 막걸리가 있는 대포집을 찾았다.

책은 전국의 막걸리와 대포집을 소개하는 안내서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전국을 누비며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직접 맛보고 느낀 막걸리를 통해 사람 냄새나는 대포집의 사연, 묵묵히 막걸리를 빚어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 우리가 모르고 지낸 막걸리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밖에도 사물장, 갈치찜, 부산 산성마을의 흑염소 불고기, 채를 썬 목을 신 김치, 김 등과 함께 벌치 국물에 말아먹는 '뚝방' 등 막걸리와 결들였던 음식이야기도 풍성하게 다뤘다.

(한국방송출판·1만3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잡힐 듯 다가서지 않는 사랑

노랑꼬리 연  
황학주 지음



1987년 시집 '사람'으로 등단한 광주 출신 황학주(56)시인의 여덟 번째 시집 '노랑꼬리 연'이 출간됐다. 고향에서 아프리카, 강원도 방랑역에서 서울 방랑동 반지향으로, 유랑하듯 떠돌며 써내려간 61편의 작품을 담았다.

유랑의 길에 서 있는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도 역시 사랑을 노래한다. 시인이 노래한 사랑은 표제시 '노랑꼬리 연'에서 보듯 깊고 아득하고 모호하다. 시인은 멀리 달아나지도, 잡힐 듯 다가가지도 않은 꼭 그만큼의 거리에 있는 그 사랑을 노래한다.

길 위에서 스쳐 지나고 떠나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애뜻함을 드러내는 시도 여러 편 있다. 특히, 사랑과 죽음을 연계해 삶, 만남과 헤어짐 등을 관조한 시편들이 눈에 띈다.

"우리 사랑할 때와 죽을 때/험수룩한 햇볕여행이라 해도/어디선가 서로의 우연이 되어온 지상의 강물 같은 시간을 추억할 수 있다면"(“우연에 가까운 사랑을 미루면 어떤가” 중)

황 시인은 "사랑이 없으면 사랑도, 죽음도 해쳐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깨달음에 사랑과 죽음을 연계한 시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돌아왔다.

황 시인은 현재 아프리카원조단체 '피스트프렌드'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서정시학·9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내가 개발한 큰놈**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 폭발이다. 그동안 이것저것 기대했다가 실망만 컸기에 큰놈을 보고도 혹시나 관심반의 하여 사용해 봤더니 신기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용즉시 발근 일어서며 잠시간 지속되니 끝인지 생사인지 청춘은 로 돌아간 듯 부둥침을 느낀다. (발기부전 개선 위한 기구 실용성인안 특허 제20-2009-0014857호는 보지 않고 구매해도 피부 같은 촉감에 달팽이 모양 같은 실러니 처음 보는 것이라 주사나 약도 아니라고 반

지 같은 링이나 진공펌프도 아닌 신체품 큰놈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장 없이 반영구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불타나게 날개 돌려 나가고 있다. \*기구를 신호하지 않는 분은 최후의 꿈, 파워마카 100% 분말로 대신하면 좋습니다. 130일분 90,000 60일분 150,000 구매사 핫나경 서적에 없는 것은유사품입니다. (주)글로벌핫나경 www.핫나경.com 999,000원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해 지므로 복용 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약약품이 아닙니다. www.핫나경.com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의 최대 고민해결! 중간에 시들거나 강직도가 약해지고 너무 빠른...본들의 "기"가 원활해지도록 도움 드리며 본인 스스로도 감각 놀랄만한 마그마원석의 다이아몬드 링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도록 10대씩 조절이 가능합니다. (8만원 상당의 고급 사은품 증정) www.핫나경.com

상담전화 농협 301-0036-8883-71 (주)글로벌 핫나경 총판(대전) 1588-1577-4101 010-8952-4114 1588-4102 010-8558-4114

**한국부동산컨설팅**

■ 매곡동 4층건물

- 건평 100평 / 대지 250평 (매매가 9억9천) 대출 9억 1억으로 인수 가능 (정형외과적합, 요양병원, 학원...)

■ 1만평 규모 토지 (품암지구 수암지구 보유)

-골프 연습장, 대형교회, 법인학교 적합

• 원룸, 상가, 건축부지 급매물 또는 경매로 맞춰드립니다.

• 병원, 교회, 노인병원 부지 너무 좋게 있습니다.

• 창고용지, 공장부지 시세 50%로 물건있습니다.

• 미트지라도 찾아드립니다.

• 경기가 인종다보니 유망물건이 많이 있고 제 물건이 맘에 안들시 고객이 맘에 들때까지 찾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부동산 컨설팅 <김호현>**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 위 치 ●

최선을 전대병원만산부근 광주에서 10분 거리 8차선도로 확장공사중 도로변 전대병원 편의시설 이용가능 민원산, 무등산 자락에 위치하여 등산,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고 공기 좋고 편안한 전원생활 최적지입니다. 원도 주택들 100년 사용하고 숲도조밀, 온도조절이 뛰어나며 수면후 민성피로 해독 아주 좋고 주인이 직영으로 건물을 생각하여 정성들어 짓은 집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퇴직자 최적화)

매매가 : 6억 8천만원 (조정가능)

• 대지 : 250평 • 건평 : 73평  
\* 지하 1층, 지상 2층(복층)  
\* 주차 고급 자동차용 시설 차량 2대 가능  
\* 최신 CCTV 8대 설치  
\* 방 4개/욕실 3개  
• 난방시설 : 심아전기  
• 조명 : 전디, 소나무  
• 건축 준공 : 2009년 10월 30일  
• 건축 구조 : 철근 콘크리트, 고야 슬라브, 한국 전동기와  
• 외부 구조 최고급 수입 대리석 시공  
• 실내인테리어  
휴향도 벽돌, 휴향도 바닥 편백나무, 소나무 미소  
\* 2층 방가루 테라스 12평 (편백나무, 스키목 시공)

◎ 주민직거래 ◎  
꼭하실문만전화요망  
☎011-634-4114

**금산공인중개사**  
T.681-5686 H.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상무화재빌딩옆(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류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유 910㎡  
■ 특징  
-주유건축시설 허가 특  
-도로점용 허가 특  
-미량에서 광주상행신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칠량농공단지 앞 유류주유소  
■ 매매가 : 1억 7천만원

**창고부지 (서광주역 2순환도로변)**

■ 창고부지 약 2600㎡(창고 490㎡) 대지 약 950㎡  
■ 매매가: 22억(조정가능)  
■ 대지, 창고 분할 매매가능  
■ 들뜬, 창고부지로 최적지